_____월 _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청춘에게 여행은 도전이기도 하다. 몽골 고비사막이 20~30대 사이에서 여행지로 인기 끄는 이유다.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 않고 여행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젊은이들은 오히려 매력으로 여긴다. 마스크를 껴야 하고 한여름에도 밤기온이 뚝 떨어져 침낭을 끼고 잔다. 러시아산 승합차를 타고 온종일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멀미와 싸운다. 사막 곳곳에 있는 게르(몽골 천막집)에서 숙박하는데, 조리시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.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다. 사막에서 볼일을 보려면 가림막이 돼 줄 대형 우산이 필수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8년 1월 29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